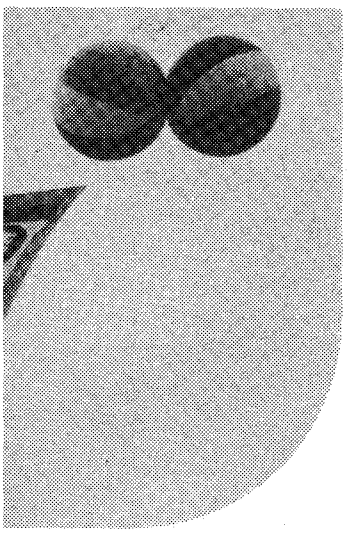


◇출품한 자연산 황기를 들어보이고 있는 한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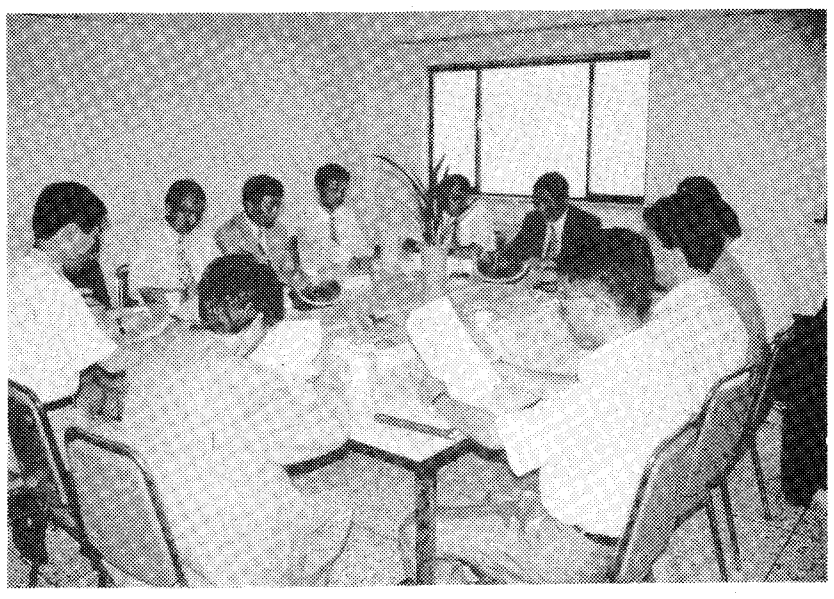
◇자생약초서식지 답사

지난 5월 28일 경기도 연천 보개산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2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생약초서식지 답사 행사를 가졌다.

자 회

◇개량종 국산지황 수매

협회는 지난 4월 31일 경남 거창, 경북 상주, 김천 등지의 96년산 개량종 지황 8천4백 24㎏을 ㎏당 5천2백원에 농가로부터 수매했다.



◇한약재 수출촉진위원회 발족

국내 생약농업육성과 한약재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한약재 수출촉진위원회가 지난 7월 30일 협회회의실에서 첫 모임을 갖고 발족했다.

감시원 제도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한약재 명예감시원은 생약생산자 단체인 한국생약협회 회원 1백명으로 구성했다.

농산물 명예감시원제는 부정유통 농산물에 대한 민간인 감시체제 확립 및 단속인력 보완을 통한 원산지표시 조기정착을 도모하고자 지난 96년 처음으로 도입 운영돼 오고 있다.

농림부는 명예감시원 활성화 방안으로 활동비 현실화 및 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에 대한 포상등 인센티브제도 도입과, 명예감시원 활동의 다각화를 위해 농검과 합동단속외에 유통정보수집 및 부정유통 신고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규격화대상품목 5백14종으로 확대

규격화 대상 한약재가 종전의 36종에서 공정서에 올라 있는 5백14종의 모든 한약재로 확대된다. 또 잔류농약과 중금속 함유량 등을 살펴 소비자들에게 한결 안전한 한약재 공급을 위해 품질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이와함께 ▲용안육, 공사인 반하등 위조·변조 우려가 있는 한약재 ▲부자·천오·낭탕근 등 중독, 오남용 우려가 있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품목 ▲개별가공이나 혼합을 [illegible] 약성이 변하기 때문에 이른바 수치, 법제가 필요한 품목등은 반드시 제조회사를 거친 규격품만 허용된다.

그러나 제조공정이 필요치 않아 단순절단 포장만으로 규격화가 가능한 품목은 재배농민, 수입업소, 판매업소들이 자가규격 표시만으로 유통시킬 수 있게 했다.

'국내산 삽주, 창출아니다' 보건복지부, 대한약전개정

지금까지 창출로 시중 유통돼 오던 국내산 삽주(A Japonica Koidzumi)는 이제 더이상 창출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대한약전 6개정안에 수재돼 있는 창출의 기원식물(국내산 삽주 : A Japonica Koidzumi)을 중국과 동일하게 A Lancea D.C 또는 A Chinensis Koidzumi로 바꾸는 내용의 7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백출과 창출의 기원식물을 동일시 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백출과 창출의 기원식물을 각각 구분키로 했다. 백출을 6개정의 「국내산 삽주(A Japonica Koidzumi)의 주피를 제거한 뿌리줄기」에서 「A Ovata Koidzumi 또는 A Japonica Koidzumi의 주피를 그대로 또는 제거한 뿌리줄기」로 개정했다. 이에따라 국내에서는 창출이 생산되지 않음으로 필요한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야 할 형편이다.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배정단체가 수입업자 결정

수급조절대상 한약재에 대한 수입업자는 관련단체가 스스로 결정하게 됐다.

보건복지부 규격개혁 관련 제도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 규정」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개정했다.

과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수입자를 선정하고 규격품대상 한약의 경우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에 우선 배정하면 동조합이 제조업자에게 배정토록 해왔다.

그러나 이는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합당한 한약재를 공급하는 수입자 선정기준이 불명확하고 의수협이 수입자를 선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키로 한 것이다.

지모·패모·길경등 3개약재 수급조절품목에서 제외

지모·패모·길경 등 3개 약재가 수급조절품목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제8차 보건복지제도 개혁위원회에서 행정명령규제일몰제 적용대상 선정과 관련해 29개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중 3개 정도를 수입금지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안을 놓고 고심해 왔다.

논의 당초에는 국내 소요량이 비교적 많고 상대적으로 생산기반이 약한 창출 백출 지황 등 3개약재가 개방대상 품목으로 집중 거론돼 왔으나 생산농가와 관련단체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개방시 충격지수가 비교적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길경등 3개 품목을 개방키로 한 것.

한약재 무역역조 현상 심각

지난해 한약재 수출실적은 지난 96년 보다 크게 떨어진 반면 수입은 수출액의 40배를 앞지르고 있어 한약재 무역역조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김영배)가 지난해 10월 집계 발표한 지난해 상반기 동안의 한약재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백22만불 어치에 그친 반면 수입은 이보다 40배나 많은 4천9백50만불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재 수출실적은 또 전년동기의 2백26만불 대비 62.5%가 감소한 것인 반면 수입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4천7백95만불 대비 3.2%가 증가 대비를 이뤘다.

지난해 협회에서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제4회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

우리땅에서 나는 우리약재 1백50여종이 한자리에 전시됐다.

한국생약협회는 지난해 11월 28일 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 서울 용산역광장에서 제4회 우수국산 한약재 전시회를 개최했다.

황기, 당귀, 작약등 흔한 보약재를 비롯 자연산 복령, 토곽향, 자연산영지, 토백출등 희귀약재들까지 다양하게 전시 판매된 이번 전시회는 첫날 개회식 행사를 시작으로 둘째날인 29일부터 본격적인 한약재 전시 판매가 이뤄졌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각 도별 전시관 외에 한약재를 이용한 가공식품관 8개, 또 처음으로 한방요리관 까지 선보여 관심을 모았다.

'97생약인 하계수련대회

지난해 8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전북 완주군 상관면 소재 전주 유스호스텔에서 97하계수련대회를 개최했다.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유대강화와 회세신장에 기여하고 우리생약 살리기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하계수련회는 지난해로 3회째를 맞았다.

각 도지부장 이사를 비롯 군사무소장 공판장장등 2백여명 회원이 함께 한 제3회 행사에서는 「국내생약농업육성방안과 생산자단체의 역할」이란 주제 아래 각 도별 주제발표회도 가졌다.

한약재 수출촉진위원회 발족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아래 국내생약농업육성과 한약재 수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한약재 수출촉진위원회가 구성됐다.

생약협회 주관으로 운영될 한약재수출촉진위원회는 농림부 관련부서와 한약재수출업체 그리고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구성, 지난 7월 3일 협회회의실에서 제1차 모임을 갖고 발족했다.

수출촉진위 모임에서는 국내한약재 수출부진 원인과 그 대책에 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우선 한약재 수출부진 원인에 관해 업체관계자들은 중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고 등락폭이 심한 국산약재 시세를 가장 큰 이유로 꼽는 한편 국내 유통구조상 중간상인들의 사재기 폐단이 생약가격을 더욱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달 1회 정기모임을 가져나갈 수출촉진위가 IMF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자리매김해 나갈지 주목된다.

농민자가규격허용 촉구

『한약관리규정의 농가 자가규격 허용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농가실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발상이며 농민에게 생약재배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생약협회는 지난해 5월 이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에 각각 제출했다.

협회는 탄원서를 통해 농가자가규격 허용조항을 폐지하고 제조업소를 통해서만 규격품을 제조 유통토록 한다면 그동안 생산농민들의 몫이었던 부가가치를 제조업소가 일방적으로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시행취지와는 달리 국내 생약생산기반을 초토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따라서 농가스스로 규격화제도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국내 생산기반이 조성될때까지는 국내생산약재에 대한 규격화를 유보하고 수입약재부터 우선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제4회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용산역광장에서 제4회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를 개최했다.

◇11대 회장 선출
지난 3월 27일 경동웨딩프라자에서 열린 제28차 정기총회에서 제11대 회장에 임연학 수석이 무투표 당선됐다.

자생약초서식지 답사

지난 5월 28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봄냄새 물씬 나는 자연속으로 약초캐기 나들이를 떠났다.

연천군 소재 보개산에서 이루어진 제3회 자생약초 서식지 답사 행사에는 약초에 관심있는 일반소비자는 물론 관련 연구직 공무원과 약학대학 등 학계에서도 다수 참석, 약초에 대한 일반인들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생약협회는 이날 서울대 약학대 지형준교수를 일일 특강 강사로 초빙, 약초별 특징과 효능에 대한 현장강의를 실시했다. 아울러 약초채취 요령과 채취하면 안되는 독초에 대해서도 교육했다.

행사참가자들은 20인 1조로 나뉘어 보개산 일대에 자생하는 약용식물의 생태를 관찰하고 채취도 했다. 또 직접 채취한 산나물은 계곡물에 씻어 즉석에서 쌈싸먹기도 하면서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개량종 국산지황 수매

지난 4월 31일 경남 거창, 경북 상주, 김천 등지의 96년산 개량종 국산지황 8천4백24kg을 kg당 5천2백원에 농가로 부터 수매했다.

그동안 소비단체인 숙지황 제소업소측과 적정수매가를 놓고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채 수매시기를 차일피일 미뤄오던 중 지난 4월말 kg당 5천2백원에 막바지 타결을 봄에 따라 늦장수매가 이뤄지게 된 것.

수매한 국산지황은 개량종 「수원 1호」로 지난 95년 한국생약협회가 우량품종 육성과 국내자급을 목표로 다수확품종인 북경1호를 들여와 시험재배를 통해 농가에 보급한 것이다.

임연학수석 제11대 회장에

지난 3월 27일 경동웨딩프라자에서 열린 제28차 정기총회에서는 10대 이종용회장에 이어 제11대 회장에 단독출마한 임연학 수석이 무투표 당선됐다.

이종용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3년간 본인은 수입개방화로 부터 우리 약재를 지켜 내는데 최대의 주안점을 두고 국산약재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우리생약 살리기 운동을 추진해 왔다』고 말하고 『미력하나마 회장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여러분들의 격려와 지지덕분이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임연학 신임회장은 『생약협회 부회장으로 몸 담아온 지난 10여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미력하나마 협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입후보하게 됐다』고 말하고 『우선 협회조직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생약농업의 기반을 저해하는 불법한약재 수입에 강력 대응해 나가는 한편 각종 생약생산 수매가공 자금이 생약생산 농가에 지원되도록 관계기관과 최선의 협의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소신을 피력했다.

◇자생약초서식지 답사 행사에 참여한 소[illegible]원.

지난해 달라진 생약업계 정책들

한약재 명예감시원제 도입

농림부는 지난해 10월 원산지표시 단속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한약재에도 농산물 명예